

선거명	제19대 국회의원선거		선거구명	서울특별시 서대문구갑	
후보자명	우상호	기호		소속정당명	민주통합당
공약번호: 1	공약 제목 : 반값등록금 실현				
<p>○ 2011년 현재 사립대의 연간 평균등록금은 768만원 이상으로 2011년 1분기 전체 가계 평균소득의 16.6%에 달합니다. 많은 대학생들이 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으며 일부 대학생은 등록금을 내지 못해 휴학을 하거나 군대를 가고 있습니다. 많은 가계들이 물가상승률을 웃도는 등록금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민주통합당은 이런 국민의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합니다.</p> <p>민주통합당 서대문갑 국회의원 후보 우상호는 이번 총선에서 주요 공약 중의 하나로 반값등록금 실현을 제시합니다. 반값등록금 공약은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대선에서 실현을 약속한 바 있었으나 실현되지 못하고 있습니다.</p> <p>민주통합당이 이번 총선에서 승리할 경우 반드시 반값등록금을 실현하겠습니다.</p> <p>반값등록금 공약은 민주통합당이 제시하는 보편적 복지 확충을 위한 공약중의 하나입니다. 민주통합당은 보편적 복지 확충을 통해 복지혜택이 99% 국민에게 골고루 펼쳐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반값등록금 공약 내용의 핵심은 등록금 수준을 부담액 기준으로 50% 인하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ICL(취업 후 등록금 상환제도)과 일반상환학자금대출을 등록금후불제로 통합하고 이자율을 인하하겠습니다.이와 함께 반값등록금 제도 도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대학의 구조개혁을 선행 또는 병행하겠습니다.</p>					
공약번호: 2	공약 제목 : 골목상권 보호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p>○ 현재 재벌(대기업집단) 지배주주의 2세, 3세들은 대규모 자본을 투입하여 서민들의 생계수단인 영세판매업인 빵집, 커피숍, 옷가게, 동네 구멍가게에 진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재벌의 무분별한 골목상권 침해는 우리 사회의 통합을 무너뜨리고 한국 자본주의의 지속가능성을 크게 약화시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의 사업영역을 설정하여 보호하는 제도적 장치가 시급합니다. 작년 정기국회에서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촉진법>을 개정하여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을 입법화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법률적</p>					

보완에도 불구하고 실효성을 담보하기에는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민주통합당 서대문갑 국회의원 후보 우상호는 적합업종에 대한 대기업의
 진입제한 위반시 경영진 또는 지배주주에대한 징역형 또는 벌금형을 부과할
 수 있도록 처벌규정을 보완하겠습니다. 또한 사업조정 조치에 따른 대기업의
 사업이양은 권고가 아닌 이양을 강제하고 위반시 과태료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와 함께 대형마트 SSM의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을 확대하여
 대형마트와 SSM을 규제하겠습니다. 또한 전통시장 활성화를 통해
 골목상권을 보호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겠습니다. 특히 서대문갑 지역의
 경우 영천시장의 아케이드화를 통한 시설 현대화와 공영주차장 확보를 통해
 보다 많은 사람들이 영천시장을 찾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공약번호: 3

공약 제목 : 부자감세 철회와 1% 슈퍼부자 증세

○ 이명박 정부 들어 90조원이 넘는 부자감세와 4대강 사업 등으로 인해 재정의
 소득재분배기능이 크게 약화되고 사회양극화가 심화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중산층은 붕괴되고 있고 빈곤층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회양극화를 완화하기 위해 민주통합당은 부자감세를 철회하고 1%
 슈퍼부자에 대한 증세를 실현하겠습니다. 그를 통해 99% 서민의 행복을
 실현하고 조세공평성을 제고하겠습니다.

감세정책을 시행한 지 4년이 경과하였으나 소비지출과 내수확대는 부진하고
 투자와 고용증가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불합리한
 조세감면을 정비하여 과세 공평성을 제고하고 실효세율을 적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 조세감면비율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모든
 비과세감면에 대해 원칙적으로 최저한세를 적용하겠습니다. 또한
 비과세감면제도를 고용창출과 연계 운용함으로써 일자리 확대를
 지원하겠습니다.

과세형평성과 소득재분배 기능을 높이기 위해 1% 슈퍼부자증세를
 실현하겠습니다. 소득세 최고세율 적용구간을 ‘3억원 초과’에서 ‘1억5천만원
 초과’로 조정하겠습니다. 또한 1억5천만원 초과소득에 대해서는
 근로소득공제를 배제하겠습니다.

사회양극화와 재정건정성을 약화시키고 있는 현행 세제는 조속히 정상화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부자감세를 철회하고 1% 슈퍼 부자에 대한 증세를 실현해야 합니다.

공약번호: 4 공약 제목 : 신촌상권 활성화

○ 신촌 지역은 지역 내 1일 평균 12만명의 유동인구가 있는 서북권 최대의 상권입니다. 또한 연세대학교와 이화여대 등의 명문사학이 위치하고 있는 대학문화의 중심지입니다. 민주통합당 서대문갑 국회의원 후보 우상호는 신촌 지역을 대학문화가 어우러진 특성화된 상권창출로 경제적 역동성을 부활시키겠습니다.

먼저 신촌 경제 활성화를 위해 상업지역 정비를 추진하고 신촌 고유문화를 창출하겠습니다. 또한 신촌문화의 에너지로 성장한 홍대앞 문화를 흡수통합할 신 신촌문화를 창조하겠습니다. 그와 함께 거리공공성 및 문화통로 구축을 위해 연세로를 ‘차 없는 거리’로 지정하여 신촌만의 차별화된 디자인거리로 조성하겠습니다.

연세로는 신촌의 중심 상권지역을 통과하는 도로로서 지하철 2호선과 연결되어 있으며 시내버스 마을버스를 포함한 18개 노선이 현재 운행중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버스노선 우회로 인한 대중교통이용승객이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대체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또한 차량 이용 방문객 감소로 인한 상권침해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사전에 충분한 주민의견수렴 및 협의 절차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은 계획을 통해 신촌의 모든 인적 물적 인프라를 통합하는 신촌발전 네트워크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상업지역 정비와 연계하여 구청 대학 상인 건물주 등이 참가하는 다자간 공동협의체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약번호: 5 공약 제목 : 전월세상한제

○ 최근 전월세의 가파른 상승은 더 이상 서민들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 안 그래도 어려운 서민경제를 더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절망적인 상황으로 인해 내 집 마련은 더 이상 이루어지기 힘든

희망사항으로 변해버렸으며 전세조차 살기 어려운 형편이 되어버렸습니다. 전월세의 급등은 공급측면에서는 저금리로 인해 임대소득을 챙기려는 주택 소유자들이 전세물량을 월세로 전환한 것이 원인이 되었습니다. 그와 함께 수요 측면에서는 장기간의 경기 침체로 주택 매매차익 기대가 줄면서 전세에 대한 수요가 늘었다는 점을 이유로 꼽을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의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부동산투기를 근절하고 주거문화를 소유개념에서 거주개념으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와 함께 적절한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합니다. 민주통합당 서대문갑 국회의원 후보 우상호는 현재와 같은 전월세 대란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서 전월세상한제를 추진하겠습니다. 전월세상한제를 도입하여 전세와 월세의 상승을 일정 수준이하로 억제하겠습니다. 그와 함께 정기공공임대주택을 현재 6.2% 수준에서 15% 수준으로 확충하여 전월세난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겠습니다. 또한 인구 1천명당 주택수를 선진국 수준인 400호까지 확대하고 실수요자형 주택공급 확대로 중산서민의 내집마련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